

선진국 기계산업 국제경쟁력 분석을 위한 현지 협회 및 기업 면담

- 박광순 선임연구위원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- 진혜진 연구원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
I. 출장 개요

- 출장기간 : 2012. 9. 17~27
- 출장지 : 독일(프랑크푸르트, 슈투트가르트, 뮌헨), 이태리(밀라노)
- 출장자 :

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박광순 선임연구위원, 진혜진 연구원

방문 목적

선진국 기계산업 국제경쟁력 분석을 위한 현지 협회 및 기업 면담, 컨퍼런스 참석

출장일정 및 방문지

| 일자 | 일정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9/17(월) | 인천 출발 →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 |
| 9/18(화) | - VDW (독일공작기계협회) 방문 및 전문가 면담 - AiF(독일산업연구협회) 방문, 자료협조 |
| 9/19(수) | - 프랑크푸르트 → 슈투트가르트 이동 - AMB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Metal Working 참관 - Trumpf, Niles-Simmons-Hegenscheidt, Grob, Alzmetall 등 독일 대표공작기계업체 부스 방문 및 면담 |
| 9/20(목) | - VDW Training system 관련 전시 및 부대행사 참관 (Nachwuchsstiftung) - DMG-Moriseki 관계자 면담 및 자료협조 (독일-일본 기업의 전략적 제휴) |
| 9/21(금) | - 뮌헨 이동 - VDWA(독일기계산업협회) 방문 - 바이에른지역 독일공작기계업체 관련 자료협조 |
| 9/22~23 (토/일) | - 뮌헨 → 밀라노 이동(열차편 이용) |
| 9/24(월) | - Federmacchine(이태리 기계산업협회) 방문 및 자료협조 - UCIMU(이태리공작기계협회) 간담회: Dott.Luca Pellegatta, Stefania Pigozzi(아시아 마케팅/ 경제분석 담당) |
| 9/25(화) | - 토리노 이동 - ACIMIT(이태리섬유기계협회) 방문 및 자료협조 |
| 9/26~27 (수/목) | - 토리노 → 로마(비행기환승) → 인천(시차상 +1일, 27일 도착) |

II. 출장 결과

1. VDW (독일공작기계협회)/VDMA(독일기계산업협회)/AiF(독일산업연구협회) 협조 사항

○ VDW(독일공작기계협회)는 VDWA(독일기계산업협회) 산하의 세부협회 중 하나로 기계분야의 전시회 주최, 회원사의 해외진출지원, 인력양성사업, 통계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

- 독일은 일본에 이어 한국의 최대 공급 국가 중 하나이며, 중국과 미국에 이은 최대 수출 대상 국가이기도 함.

□ 독일 공작기계 기업의 특징

○ 독일 공작기계산업은 대기업집중도가 낮으며, 다양한 품목에서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특화된 중견기업이 포진해 있음.

- 3년을 주기로 독일 대다수의 기계설비 업계에서는 신규 모델이 창출되고 있으며, 최근 독일 내 기업간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이 증가하는 추세

<표 1> 독일 공작기계분야 대중소기업 비중

단위: 명, %

| 기업규모 | 기업 비중 | | | 종업원 비중 | | | 생산비중 | | |
|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2009 | 2010 | 2011 | 2009 | 2010 | 2011 | 2009 | 2010 | 2011 |
| 1-50 | 17.9 | 15.9 | 16.2 | 1.5 | 1.2 | 1.0 | 1.3 | 1.4 | 1.6 |
| 51-100 | 14.6 | 18.6 | 14.3 | 3.7 | 4.6 | 3.3 | 3.9 | 3.4 | 2.8 |
| 101-250 | 29.3 | 23.9 | 26.7 | 16.3 | 13.8 | 13.9 | 15.4 | 13.7 | 13.5 |
| 251-200 | 21.1 | 23.9 | 23.8 | 25.8 | 26.6 | 25.5 | 28.3 | 26.2 | 24.6 |
| 501-1000 | 13.0 | 13.3 | 13.3 | 30.0 | 30.4 | 28.7 | 32.2 | 36.2 | 29.9 |
| 1000명 이상 | 4.1 | 4.4 | 5.7 | 22.7 | 23.4 | 27.7 | 19.9 | 19.1 | 27.6 |
| 총합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

자료: VDW(독일공작기계 협회)

○ 두 번째 특성은 기계제품의 다양화 전략을 통해 내수와 수출 시장에서의 리스크 분산한다는 점임.

- 독일 업체는 총 31개 세부기계 산업부문 중 17개 부문에서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 차지

- 세 번째는 대량 시리즈 생산보다 맞춤형 특수기계 제작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 됨.

- 전문화된 엔지니어링 기술과 고비용이 요구되지만, 그만큼 판매 마진이 높아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후발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

□ 주요 수급구조

- 독일 공작기계 협회에 따르면 2011년 독일 공작기계 생산은 120억 유로를 기록했으며, 이 가운데 수출은 69억 유로로 57%의 비중

-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수주에 차질이 생겨 2009~2010년 수출이 감소했으나, 2010년 하반기부터 수주상황이 개선되면서 현재 가동율이 매우 높은 상태

<표 2> 독일 공작기계 수급구조

단위: 백만유로

| | 생산 (수리 제외) | 수출 | 수입 | 내수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2005 | 9,700 | 6,136 | 2,165 | 5,730 |
| 2006 | 10,072 | 7,055 | 2,599 | 5,617 |
| 2007 | 11,769 | 7,759 | 3,341 | 7,351 |
| 2008 | 13,253 | 8,206 | 3,712 | 8,758 |
| 2009 | 9,390 | 6,033 | 2,121 | 5,477 |
| 2010 | 9,011 | 6,087 | 1,983 | 4,912 |
| 2011 | 12,506 | 7,949 | 2,819 | 6,921 |

자료: VDW(독일공작기계 협회)

- 경제 위기의 해였던 2009년과 2010년 초에는 기계산업관련 업계에서 약 6만1000개의 일자리가 삭감됐으며 경제위기가 최고조였을 시기에는 총 24만 명의 종사자들이 단축근무를 했을 정도

- 2012년에는 생산이 5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, 2012년 하

반기 각국의 정치불안 요소로 인한 설비투자 축소를 위협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.

○ 품목별로 2011년의 실적을 보면 금속절삭기계의 비중이 금속성형기계의 비중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금속절삭기계에서는 머시닝 센터, 금속성형기계에서는 프레스머신의 비중이 가장 높음.

- 유연생산시스템 및 자동화 트렌드와 자동차업계에서의 수요증대가 주요 동인

<그림 1> 독일 공작기계 품목별 실적(2011년)

단위: 백만유로



자료: VDW(독일공작기계 협회)

○ 독일 공작기계 업계에게 한국은 10위권 안의 전략시장으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

- 한국의 자동차, 조선 등 수송기계와 금형을 비롯한 기계업계, 전자업계 등이 주요 수요처

- 공작기계협회 주최로 최근 신흥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주요 수요처를 초청한 컨퍼지엄을 개최하는 등 독일의 전문화된 중견기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 중

- 2010~2011년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부터 수혜를 입었으나 최근은 중국의 모방,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
<표 3> 독일 공작기계 주요 수출 국가 현황(2011년)

단위: 백만유로, %

| 국가 | 수출(종합) | 기계류 | 부품류 | 비중 |
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
| 중국 | 2,303 | 2,142 | 161 | 29.0 |
| 미국 | 723 | 602 | 121 | 9.1 |
| 러시아 | 376 | 327 | 49 | 4.7 |
| 스위스 | 360 | 216 | 144 | 4.5 |
| 프랑스 | 331 | 271 | 60 | 4.2 |
| 이탈리아 | 290 | 241 | 50 | 3.7 |
| 오스트리아 | 263 | 201 | 62 | 3.3 |
| 인도 | 263 | 233 | 30 | 3.3 |
| 폴란드 | 211 | 179 | 32 | 2.7 |
| 한국 | 205 | 185 | 20 | 2.6 |

자료: VDW(독일공작기계 협회)

- 그 외 미국, 중국, 중남미 등 전략시장에 대한 해외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.

<표 4> 독일 공작기계 주요 수입 국가 현황(2011년)

단위: 백만유로,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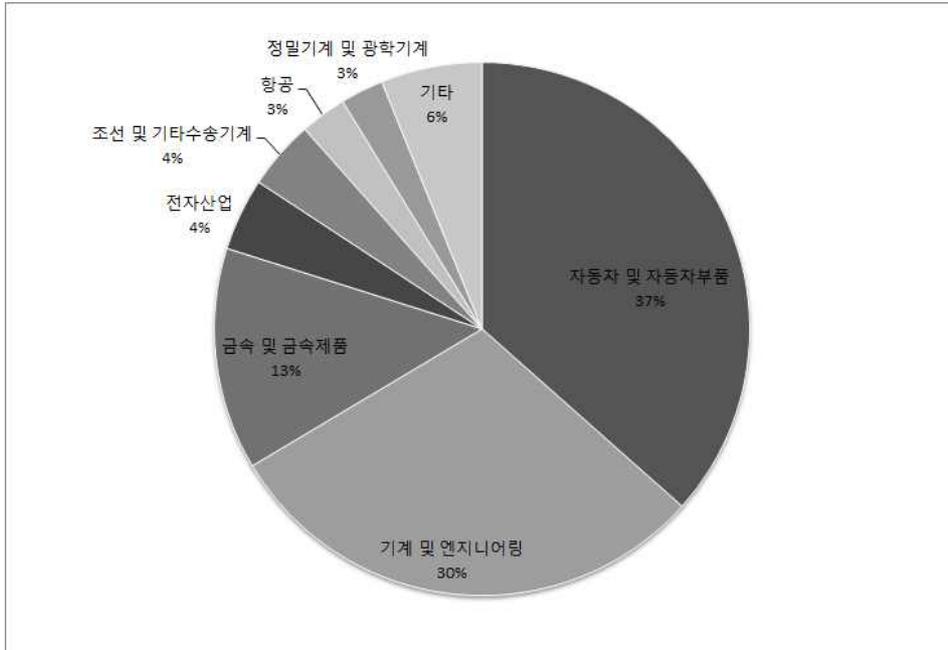
| 국가 | 수입(종합) | 기계류 | 부품류 | 비중 |
|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-|
| 스위스 | 899 | 714 | 185 | 31.9 |
| 일본 | 356 | 317 | 39 | 12.6 |
| 이탈리아 | 217 | 146 | 71 | 7.7 |
| 체코 | 142 | 94 | 49 | 5.0 |
| 미국 | 130 | 95 | 35 | 4.6 |
| 오스트리아 | 120 | 87 | 33 | 4.3 |
| 중국 | 112 | 87 | 25 | 4.0 |
| 한국 | 112 | 104 | 8 | 4.0 |
| 대만 | 102 | 91 | 11 | 3.6 |
| 네덜란드 | 76 | 61 | 16 | 2.7 |
| 프랑스 | 72 | 51 | 21 | 2.6 |
| 폴란드 | 62 | 18 | 44 | 2.2 |

자료: VDW(독일공작기계 협회)

- 독일 공작기계 업계의 수입은 스위스, 이탈리아, 체코, 오스트리아, 네덜란드, 프랑스, 폴란드 등 국경이 인접한 국가의 비중이 56.3%를 차지
- 정밀기계가 발달하고, 같은 독어권에 속하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비중이 높은 편

-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는 부품업체 진출로 인한 부품류 수입이 활발
- 일본과의 수입 증가는 공작기계 분야에서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및 일-독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따른 부품표준화가 원인

<그림 2> 독일 공작기계 수요산업 비중(2009년 생산 기준)



자료: VDW(독일공작기계 협회)

- 수요산업은 넓은 의미에서의 기계산업이 80%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으며,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음.
- 수요산업의 첨단화 및 자동화 추세에 따라 독일업체들은 멀티태스킹 머신, 다축가공 머신, 대형가공기계, 초미세가공기계, 하이브리드 머시닝 시스템 등 첨단기계에서 글로벌 TOP경쟁력을 보유
- 융합장비와 신공정장비 등이 기술개발 및 도입기에서 기술활성화 및 확산기로 진입

<표 5> 독일 공작기계분야 최신기술 동향

| 주요기술 | 내용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드라이 공정 | 윤활유를 최소화하고, 냉각수를 제거하거나 절감하여 환경에 |

| | |
|--|---|
| (dry machining) |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공정 |
| 하이브리드 공정 (hybrid process) | 초음파 또는 레이저를 활용하여 공정을 지원 |
| 마이크로 공정 (micro processing) | 절삭공정에서 마이크론(micron) 크기, 나노 단위 표면기술을 적용하여 구성요소를 최소화 |
| 프로세스 망 단축을 통한 종합 공정 (complete machining) | 터닝, 밀링, 기어 커팅, 연삭 등 각각의 기계에서 수행되던 공정들을 한 기계에서 한 번의 조작으로 가능하게 통합 |
| 컨트롤시스템 (control system) | 입지분산,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단,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통한 에러방지 등 컨트롤시스템 분야의 혁신 진행 |
| 에너지 효율화 (energy and resource efficiency) | 비용감소와 규제에의 대응,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절전형기계, 산업폐기물이 최소화된 공정 연구 |

자료: VDW(독일공작기계 협회)

- 면담 결과, 주요 독일 공작기계 기업에 대한 List 및 주요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향후 통계교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

2. AMB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Metal Working 참관

□ 개요

- 독일 국제 금속가공전시회(AMB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Metal Working)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슈투트가르트 뉴트레이드페어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, 34개국 1,356개 사가 참여
 - EMO, BIMU와 더불어 유럽지역 3대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로, 짝수해에 격년제로 치루어지며 EMO와 번갈아 진행됨.
- 공구관, 절삭기계관, 연마기계관, 소프트웨어관, 로봇관, 부품관 등 품목별 전문관 형태로 이루어져있으며, 특히 독일, 스위스, 이탈리아 등 유럽기업들이 강세
 - 한국기업의 참여는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으며, 유럽 주요기업 및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룸.
- 독일의 주요 공작기계 기업인 Trumpf, Heckert, Kapp Gruppe, Heller,

Hamuel, MAG, Liebherr, Grob 등에 대한 생산정보 및 자료, 한국고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

□ 주요 특징

○ 전시기간 내 기계산업의 인재유치 및 인력양성을 위해 VDW주최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

- 전문학교 및 대학에서 기계관련학과 학생을 초청, 교통편 등을 제공하여 무료로 전시회를 참관하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.

- 지멘스를 비롯한 주요 기계설비류 기업에서는 젊은 엔지니어 중심으로 학생에 친밀한 프로그램을 운영

- 기계기술에 대한 대회시상 및 축하파티 등 부대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

○ 기업별 전시관도 카페형으로 운영하여, 바이어와 참관객, 전문가 간의 다양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

- 주최측에서도 전시회관람, 기업관에서의 미팅과 네트워킹, 전문세미나 등과 함께 독일기업견학, 풍력설비 관련 투어, 전시회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(After work 브랜드) 등 전시회 관람기간을 통틀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

□ 주요 트렌드

○ 독일 기계협회 중심으로 'Blue Competence'라는 전략적 방향에 따라 친환경 공작기계에 대한 관심 증대

-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, 원재료 및 장비의 사용최소화를 실현하는 친환경 공작기계 개발, 설비투자에 초점

- 윤활유 회수 및 재생시스템, 저온 수용성 냉각시스템, 칩 재생 및 재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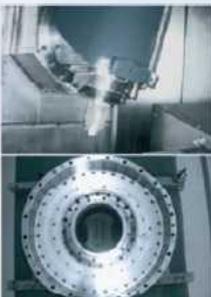
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이 전시

- IT융합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솔루션, 멀티태스킹 머신 등이 강세
 - 선삭, 드릴링, 밀링, 연삭, 기어절삭, 성형 등과 같은 개별 공정의 결합추세가 강화되면서 멀티태스킹 머신 비중이 증가
 - 생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속, 고효율, 고강성 첨단기계를 다양한 기업이 출시
- 수요산업에 대한 맞춤 시스템 패키지 강화
 - 기계류 기업의 서비스화 증대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비, 공구, 시스템, 사후관리 등 통합 패키지를 제공
 - 특히 유럽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'토탈 엔지니어링'적 접근을 기반으로 주요 기술 및 제품이 소개
- DMG-Moriseiki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업 간 협력체제 강화 형태가 등장
 - 대형 장비업체들 간의 공동마케팅 및 전 수요산업을 대상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축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
 - 영세 장비업체들 간의 전략적 제휴 및 통합으로 장비의 풀라인업을 구축하여 시장에 공동대응
 - 장비업체와 부속제품(부품 등)업체의 협력으로 패키지 구축
 - 대형 장비업체와 요소기술업체,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협력 등장
 - 장비업체와 자동화업체와의 협력으로 인한 제조관련 패키지 제공범위 확대

3. DMG-Moriseiki 관계자 면담

- Gildemeister와 Moriseiki는 각각 독일과 일본의 대표적인 공작기계 업체로서 2009년부터 협력을 시작
 - 2009년 대만, 인도네시아, 터키 등에서 영업망과 서비스를 통합한 데 이어 2010년 미국과 인도에서의 기업활동도 통합
 - 2011년 지분투자를 결정하고, 2011년부터는 DMG/MORISEIKI 브랜드로 각종 해외전시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, 공동개발을 시행
 - 2012년에는 DMG/MORISEIKI Europe AG의 본사를 스위스에 설립함으로써 통합을 가속화
 - 2013년부터 Moriseiki는 주축과 공구대 일부에 유럽제품을 적용할 예정이며, 핵심부품을 제외한 부품을 DMG와 표준화를 진행
- DMG와 Moriseiki는 영업 및 서비스, 연구개발, 부분품생산, 고객금융, 구매 등의 활동을 통합
 - 이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, A/S의 속도와 범위를 개선하여 고객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였고, 각종 중복투자 제거로 인한 비용 절감 등 win-win 하는 결과를 가져옴.

<그림 3> DMG-Moriseiki 협력범위

| | | | | |
|---|---|---|--|---|
|  |  |  |  |  |
| Sales & Service | Research & Development | Production Components | Customer Financing | Procurement |
| Main focus: Greater efficiency Greater customer bonofite | Main focus: Cost saving of development budget | Main focus: Cost reduction Growth in quality | Main focus: Easy financing for our customers | Main focus: Cost reduction in purchasing costs |

Our aim: To make gains in efficiency for our customers by bundling resources and using common expertise.

자료: DM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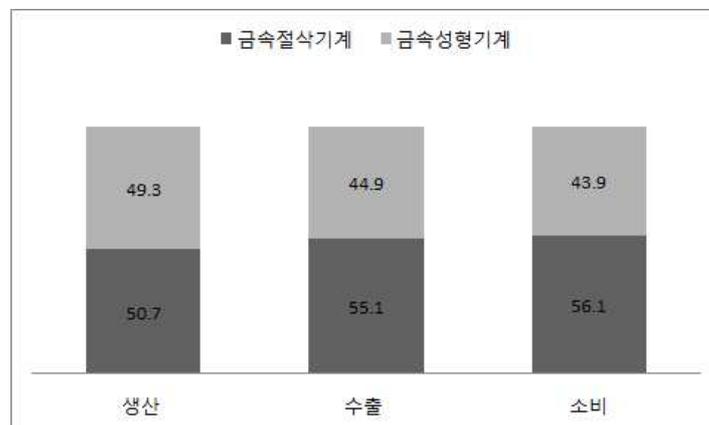
- DMG는 Moriseiki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공동 영업망 활용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 아시아 각국에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영위
 - 특히 DMG의 경우 한국기업의 특징인 집단주의, 엄격한 계층구조, 체면중시로 고객에게 No라고 분명히 답변하지 못하는 문화 등으로 인해 현지지사과 본사간 커뮤니케이션에 난항을 겪은 경험이 있음.
 - Moriseiki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 적용 등으로 인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중
- 독일기업은 DMG-Moriseiki의 사례와 같이 시장성장이 빠른 아시아 지역, 신흥시장 대응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기업협력형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

4. Federmacchine(이태리 기계산업협회)/UCIMU(이태리 공작기계협회) 협조사항

- 이태리 공작기계 협회는 1945년에 창립되어 약 20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, 회원사는 절삭기계류의 비중이 60%, 성형기계류의 비중이 약 40%로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제공

<그림 4> 이탈리아 공작기계 품목별 비중(2011년)

단위: %



자료: UCIMU(이탈리아공작기계협회)

-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, 공작기계 전체 업체에서 100명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% 미만
- 공작기계류 분야에서 2011년 기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제조국으로 중국, 일본, 독일 다음

<표 6> 이탈리아 공작기계분야 대중소기업 비중

단위: 명, %

| 기업규모 | 기업 비중 | 종업원 비중 | 생산비중 | 수출비중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
| 50명 이하 | 57.4 | 16.7 | 14.2 | 11.4 |
| 50-100 | 13.9 | 12.5 | 10.9 | 10.1 |
| 100명 이상 | 28.7 | 70.8 | 74.9 | 78.5 |
| 종합 | 100 | 100 | 100 | 100 |

자료: UCIMU(이탈리아공작기계협회)

- 기계류는 이탈리아의 주요 제조업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전 제조업 중에 가장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(36.1 Billions Euro)
- 패션시스템의 2배 이상을 차지

<표 7> 이탈리아 공작기계 수급구조

단위: 백만유로

| | 생산 | 수출 | 수입 | 내수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2009 | 3,770 | 2,399 | 642 | 1,371 |
| 2010 | 3,789 | 2,462 | 691 | 1,327 |
| 2011 | 4,250 | 3,070 | 806 | 1,180 |

자료: UCIMU(이탈리아공작기계협회)

- 공작기계의 경우 70%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, 그 중 40~45%는 유럽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음.
- 주요 수출품목은 대형공작기계, 레이드, 그라인딩 머신, 밀링머신, 머시닝 센터 등
- 2011년 기준 이탈리아 공작기계는 EU생산에서 약 21% 정도를 차지

○ 인접국인 독일과 프랑스, 러시아 등의 수출비중이 컸으나 최근 5년 간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

- 한국도 중요한 시장으로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.

<표 8> 이탈리아 공작기계 주요 수출국가 비중 변화

단위: %

| 국가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1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중국 | 8.1 | 8.2 | 14.0 | 14.2 | 13.7 |
| 독일 | 13.5 | 14.5 | 14.1 | 10.5 | 11.8 |
| 미국 | 7.3 | 7.3 | 8.7 | 5.8 | 9.2 |
| 프랑스 | 6.2 | 6.2 | 6.3 | 5.6 | 5.8 |
| 브라질 | 1.7 | 3.5 | 3.4 | 4.7 | 5.8 |
| 러시아 | 5.1 | 5.2 | 4.0 | 4.8 | 4.7 |
| 인도 | 3.2 | 3.5 | 3.1 | 5.6 | 4.4 |
| 터키 | 3.5 | 2.2 | 2.1 | 2.8 | 3.8 |
| 폴란드 | 4.2 | 3.7 | 3.0 | 3.2 | 3.4 |
| 스페인 | 6.8 | 5.0 | 3.0 | 2.9 | 2.5 |
| 스위스 | 2.2 | 2.1 | 2.3 | 2.0 | 1.9 |
| 멕시코 | 1.6 | 1.6 | 1.0 | 1.6 | 1.7 |
| 한국 | 0.9 | 1.1 | 1.9 | 2.0 | 1.5 |

자료: UCIMU(이탈리아공작기계협회)

○ 주요 수입국은 독일과 일본, 스위스 등 첨단 공작기계 강국으로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.

- 한국기업에 대한 이태리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가 지체되자 아시아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인 분위기

<표 9> 이탈리아 공작기계 주요 수입국가 현황(2011)

단위: 천유로 %

| 국가 | 수입규모 | 전년대비 증가율 | 점유율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독일 | 218,595 | 8.6 | 27.1 |
| 일본 | 96,877 | 37.5 | 12.0 |
| 스위스 | 68,709 | -5.9 | 8.5 |
| 벨기에 | 66,658 | 27.6 | 8.3 |
| 한국 | 54,730 | 357.1 | 6.8 |
| 오스트리아 | 53,286 | 13.8 | 6.6 |

| 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|-----|
| 대만 | 42,010 | 28.3 | 5.2 |
| 스페인 | 29,795 | 24.8 | 3.7 |
| 중국 | 28,743 | -6.8 | 3.6 |
| 미국 | 27,119 | -4.5 | 3.4 |
| 프랑스 | 25,566 | 15.2 | 3.2 |

자료: UCIMU(이탈리아공작기계협회)

○ 2008년 이전에는 기계업계에 대한 정부의 세제혜택이 있었으나 현재 재정위기로 인해 정부지원은 미미한 상황

- 투자지연에 의한 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협회 중심으로 세제혜택에 대한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나,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

○ 최근 대만 및 중국기업에 의한 이탈리아 기업 매수 및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, 이탈리아 기업의 경우도 투자유치를 위해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 중

- 주요 한국기계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청

○ 이 외에 이탈리아 공작기계 산업에 대한 fact book, 이탈리아 주요 공작기계 기업 list, 해외투자유치 자료 등을 수집

- 향후 데이터 교환, 기업자료 교환 등에 대한 업무협약도 진행

5. ACIMIT(이태리섬유기계협회) 협조 사항

○ 섬유기계의 특성을 보면, 섬유기계에 적용되는 기술의 혁신속도가 타 산업에 적용되는 장치산업에 비하여 매우 느려 제품 생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편

- 최근 고속화, 원자재 자원 및 노동력 절약, 친환경 대응 등을 위한 첨단 기술이 반영된 섬유기계가 개발되어 산업현장에 투입

○ 유럽의 경우 패션산업이 섬유기계를 리드하고 있으며 구조 조정기를 마치고 각국별로 오랜 전통과 특화된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화와 분

업화가 완성

- 이탈리아, 독일, 스위스 등은 1품목 1개 업체로 특화
 - 이탈리아의 경우 연사기의 FADIS, 경편기계에 STEEGER, 횡편직기계에 COMEZ, 염색기의 MCS 등의 기업이 대표적
 - 주요기업은 M&A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였으며, ITEMA GROUP의 경우 Somet, Sulzer Textil, Vanatex 등을 합병
- 2010년 이탈리아 섬유산업 총매출은 전년대비 11.8% 증가한 75억유로를 기록하는 등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서서히 이전수준으로 회복세를 나타냄
- 이탈리아의 섬유/패션산업은 전체 제조업 수출의 8.6%, 전체 고용의 11.4%를 각각 차지
 - 이탈리아 섬유/의류산업은 약7만개의 업체와 약 54만명의 종사자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 90%가 종사자 15명 미만의 소기업
-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수출은 2010년 현재 84억 유로, 수입은 132억 유로로 2006~'10년 동안에 각각 연평균 4.3%와 0.4% 증가율을 기록
- 부분별로 사, 직물류 등의 섬유제품과 의류 수출은 2010년 현재 34억 유로와 50억 유로로 2006~'10년 동안에 섬유제품은 연평균 2.2% 감소한 반면에 의류의 경우는 동 기간에 연평균 2.5% 증가율을 기록
 - 또한 부분별 수입의 경우는 2010년 현재 섬유제품이 61억 유로, 의류가 71억 유로로, 2006~'10년 동안에 섬유제품은 연평균 1.7% 감소한 반면에 의류의 경우는 동 기간에 연평균 2.5% 증가율을 기록
- 이탈리아 섬유산업은 대기업이 판매와 마케팅에 특화하고,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을 받아 생산에 전담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재의 생산, 상품 기획, 제품 생산과 유통 등 value

chain 단계별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

- 최근 패션 및 디자인의류제품분야에서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저가 제품과의 경쟁 열위로 업체와 근로자수 등 관련 업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
- 이탈리아의 기술화된 섬유 의류 제조능력과 지역별 특성화된 섬유 의류 산업구조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특성화된 수공업기술과 연계되어 성장